

sexuality 행사 제 2차 기획회의

1. 날짜 변경 - 5월 27~29일

2. 여성이 말하는 (여성의 욕망) sexual identity, pornography
 - (욕망을 영화화하기(여문)) shame no more 외 1편(퀴아) (어느 소녀의 포르노보고석(여문?))
 → 주유신씨 강연(미정...안되면 김현미선생님께 메달리든지...)/박통 강연 or 토론회/토론회 or ?

3.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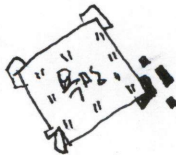
	월	화	수	목	토	일
이번주: 준비주 ① 영화·토론회 결정과 섭외, 장소섭외 ① 포스터 디자인과 <자료집> 내용 결정	12	13	14	15	16	17 18
다음주: 선전주 ① 포스터 붙이고 글토해내기! ① PC/자보 쓰고 붙이기(왕자보 26~29일)	19	20	21	22	23	24 25
다다음주: 행사주 ① 당일 장소지키고, 포스터붙이고. ① 행사 후 마무리하고, 평가회의	26	27	28	29	30	1 2

4. 논의해야 할 것

- ☞ 주제는 이대로?
- ☞ 행사 이름과 기조-_-;; 는?
- ☞ 영화와 토론/강연은 어떻게?
- ☞ 자료집 내용과 사이즈와 부수는?
- ☞ 포스터 디자인은?
- ☞ 다음 기획회의 날짜는?

asexual!

mono



7/2

shame no more + 연련 하

강연 영화

행미관. OTL

HC 2023 4월 2주

주사.

sexual identity

여성자본.

여성인류 포르노그래피

4

이문씨 준비된
"군악전투"

2.0.

2차 기획회의

기조 논의

‘여성의 욕망’에 좀 더 집중하자.

이치예

① ‘여성의 욕망’이라는 말에 담긴 사회적 시선들. 여성의 욕망은 출세욕이나 성공욕 더 이따구의 것들과 많이 연결되기도 하는 반면, 여성의 욕망은 성적 욕망으로만 환기되는 현실. 여성이라는 존재의 성애화가 아무래도 그 원인이 아닐까.. 자본전 · 구력

② 여성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위 Memo drama / 힘 한 일이다. 스스로의 색수열한 욕망을 드러낸 여성의 옷차림이 성폭력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현실. 너가 먼저 유혹했으니 너가 문제 있는 여자 아니냐는 비난. 성적 욕망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성적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겪게 되는 고난 역시 산 넘어 산.

③ 세상에 두 종류의 여성이 있다. 욕망을 가진 여자와 욕망이 없는 여자. 남성들은 이렇게 여성들을 나눈다. 욕망이 전혀 없거나, 욕망만으로 점철된 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욕망이 전혀 없는 상태의 여성은 언제까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야할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애인 혹은 결혼할 여자가 되리라. 그리고 욕망만으로 점철된 여성은 성매매 여성을 비롯한 온갖 ‘쉬운’ 여자들이 될 것이다. (여기엔 동료를 비롯하여 온갖 관계의 여성들이 유동적으로 들어가겠지)

남성이 구분한 성녀/창녀의 구분 속에서 여성의 욕망은 어디에도 없다. 결합과 과잉 사이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할 뿐. 혹은 그 자체가 허구로써 존재할 뿐. photography

④ 당신이 욕망하는 나는, 내가 욕망하는 내가 아니다. 당신의 환상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나를 환상 속에 가두지는 않는다. 욕망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지 못하는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습만 만들어 내는 것은 이제 지겹지 않은가. 당신의 눈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⑤ 하지만 찾기가 힘들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사라졌는지 어디에 있는 지 찾을 수가 없다. 무엇이 당신의 욕망이고 무엇이 나의 욕망인지 알 수가 없다. 어쩌면 욕망이란 만들어지는 것. 이제부터 나의 욕망은 내가 만들어 간다. 자

5/8

욕망을 영화화하기

3인

주인공

포스터

눈을 많이 뜨는 것일까!

자본전은 글 많이 쓰고 정성껏 이미지 많이

Memo drama

2차 기획회의

기조 논의

‘여성의 욕망’에 좀 더 집중하자.

21. ‘여성의 욕망’이라는 말에 담긴 사회적 시선들. 남성의 욕망은 출세욕이나 성공욕 머 이 따구의 것들과 많이 연결되기도 하는 반면, 여성의 욕망은 성적 욕망으로만 환기되는 현실. 여성이라는 존재의 성애화가 아무래도 그 원인이 아닐까..

22. 여성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것을 드러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위 /협/한 일이다. 스스로의 섹슈얼한 욕망을 드러낸 여성의 옷차림이 성폭력의 정당성을 확보 해주는 현실. 너가 먼저 유혹했으니... 너가 문제 있는 여자 아니냐는 비난. 성적 욕망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나, 성적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겪게 되는 고난 역시 산 넘어 산.

23. 세상에는 두 종류의 여성이 있다. 욕망을 가진 여자와 욕망이 없는 여자. 남성들은 이렇게 여성들을 나눈다. 욕망이 전혀 없거나, 욕망만으로 점철된 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욕망이 전혀 없는 상태의 여성은 언제까지고 지켜주고 보호해야할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애인 혹은 결혼할 여자가 되리라. 그리고 욕망만으로 점철된 여성은 성매매 여성을 비롯한 온갖 ‘쉬운’ 여자들이 될 것이다.(여기엔 직장 동료들 비롯하여 온갖 관계의 여성들이 유동적으로 들어가겠지)

남성이 구분한 성녀/창녀의 구분 속에서 여성의 욕망은 어디에도 없다. 결핍과 과잉 사이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할 뿐. 혹은 그 자체가 허구로써 존재할 뿐.

24. 당신이 욕망하는 나는, 내가 욕망하는 내가 아니다.

당신의 환상 속에 내가 존재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나는 나를 환상 속에 가두지는 않는다. 욕망이 있다고도 없다고도 말하지 못하는 엉거주춤한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모습만 만들어 내는 것은 이제 지겹지 않은가. 당신의 눈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본다.

25. 하지만 찾기가 힘들다. 언제부터 있었는지 또 사라졌는지 어디에 있는 지 찾을 수가 없다. 무엇이 당신의 욕망이고 무엇이 나의 욕망인지 알 수가 없다. 어차피 욕망이란 만들어 지는 것. 이제부터 나의 욕망은 내가 만들어 간다.

degree women's desire

4→ 강현

50

21.89

6시반

678. 21.89

21.89 1309

